

당신은 고등학교 시절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윤혜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윤종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I. 서론

□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면서 어릴 적 가졌던 장래 희망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곤 함.

○ “장래 희망을 물었을 때 눈이 빛나지 않는 아이를 본 이가 있을까? 어릴 적 꿈꾸는 장래 희망을 회상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는 「OECD 교육지표 2017」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며 직업 선택에 영향을 주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과거의 장래 희망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하였음(OECD, 2017).

○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최근 진로탐색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희망 직업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이룬 시기에 경험하고 있음.

□ 청소년기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직업’으로,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꿈을 찾는 것을 어려워 할 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직업이 있더라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함.

○ 최근 통계청이 실시한 ‘2019 청소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13~24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직업(30.2%)’이며, 다음은 ‘공부(29.6%)’와 ‘외모

(10.9%)' 순으로 나타남. 2년 전 과거에 비교할 때 직업(1.3%p)에 대한 고민은 늘어난 반면 공부(-3.3%p)에 대한 고민은 줄어듦(통계청 외, 2019).

- 또한 통계청이 실시한 '2020 청소년 통계'에서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13~24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2.8%)'이었으며, 다음으로 '적성·흥미(28.1%)'와 '안정성(21.0%)' 순으로 나타남(통계청 외, 2020).
- 청소년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으며 희망하는 직업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직업을 갖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성적에 맞춰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하기도 함.
- 아울러 어려서부터 심각한 취업난을 앞으로 겪어야 할 자신의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진로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께 희망 직업이 있어도 관련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됨(유홍준 외, 2013).

□ 어떠한 직업을 희망하고 선택하였는지는 개인의 미래 가능성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만들 우리 사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직업 선택은 개인이 앞으로 삶에서 마주할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미래 희망 직업에 대한 탐색과 결정은 대학 학과 선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기 희망 직업은 특정 직업에 편중되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 졸업 후 첫 번째 일자리가 희망 직업과 상관없는 별개의 직업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함(손진희, 2014). 최근 인공지능의 부상에 따라 대부분의 현재 일자리가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은 10여 년 전 고교시절의 희망 직업을 실제로 갖게 될 가능성은 앞으로 점차 희박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함.

- 본고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의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당신은 고등학교 때 희망했던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고교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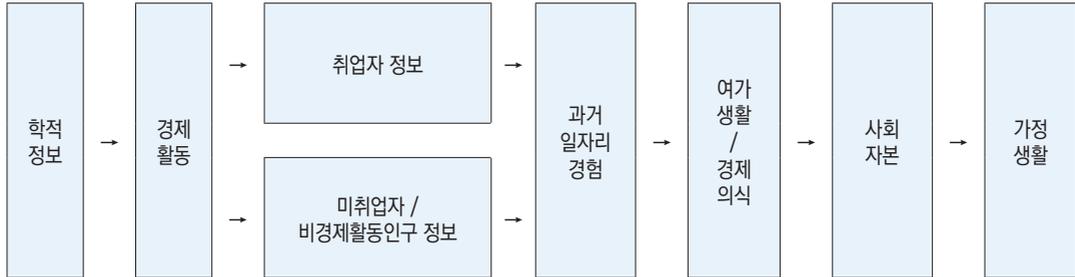
II. 분석 자료 및 분석 대상의 기본 특성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EP)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응답자 개인 특성별 고등학교 시절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및 이에 따른 직장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함.

- 한국교육고용패널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이하 한국교육고용패널 추적 조사) 자료는 2015년 12차 조사로 종료된 한국교육고용패널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이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조사로, 기존 한국교육고용패널의 대상자를 추적하여 학적정보, 경제활동, 취업자 정보, 미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정보, 과거 일자리 경험, 여가생활, 경제의식, 사회적 자본, 가정생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조사함(황성수 외, 2019).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38902)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연 1회 수행하는 패널조사로 확률 표집된 패널들의 교육, 학업생활, 진로, 교육훈련, 노동시장 이행 등을 조사함.

그림 1. 한국교육고용패널 추적 조사 문항 구조



- 분석에 활용한 대상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추적 조사 응답자 총 3,150명이며, 문항별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음.
- 측정 오차를 최소화하고 확률 표집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횡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함.

표 1. 한국교육고용패널 추적 조사 문항별 응답자 수

(단위: 명, %)

문항		전체 응답자 수	비율	비고
희망 직업 종사 여부		3,150	100.0	전체 응답자
성별		3,150	100.0	
최종 학력		3,150	100.0	
대학 전공 계열		2,636	83.7	최종 학력 “전문대학” 이상 응답자
대학 소재지		2,622	83.2	최종 학력 “전문대학” 이상 응답자
산업 코드		2,677	85.0	취업자
직업 코드		2,677	85.0	
직장	근무 환경	2,677	85.0	
	임금(소득)	2,677	85.0	
	발전 가능성	2,677	85.0	
만족도	사회보험 및 복지	2,677	85.0	
	고용 안정	2,677	85.0	
	승진 제도	2,677	85.0	

Ⅲ. 분석 결과

1.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성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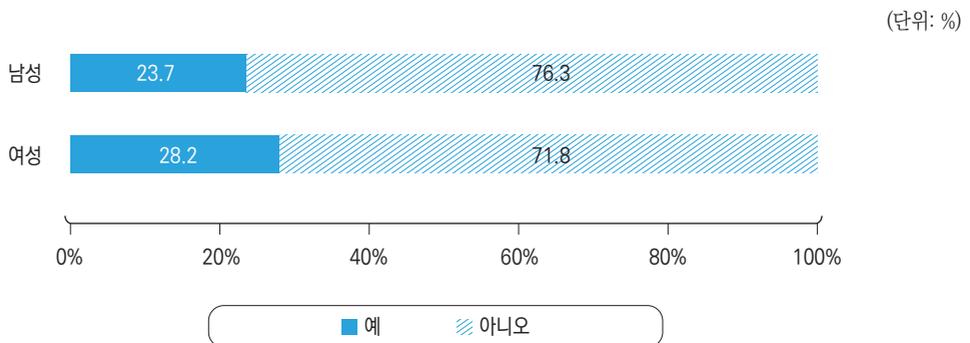
- 현재 고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4명 중 1명이 고등학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현재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 비율은 28.2%로 남성(23.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표 2. 성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남성	23.7	76.3	100.0
여성	28.2	71.8	100.0
전체	25.5	74.5	100.0

그림 2. 성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최종 학력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최종 학력별로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자일수록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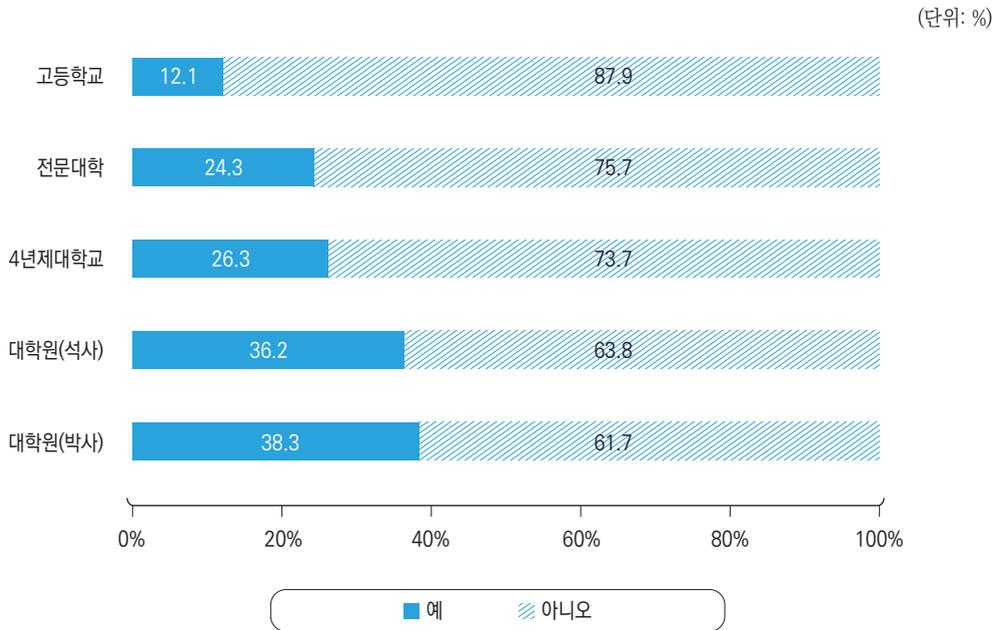
- 최종 학력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종 학력이 대학원 박사인 경우 38.3%, 대학원 석사인 경우 36.2%가 “고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년제 대학인 경우 26.3%, 전문대학인 경우 24.3%, 고등학교인 경우 12.1% 순으로 낮아져 고학력일수록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고교 시절 희망했던 직업이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표 3. 최종 학력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고등학교	12.1	87.9	100.0
전문대학	24.3	75.7	100.0
4년제 대학교	26.3	73.7	100.0
대학원 석사	36.2	63.8	100.0
대학원 박사	38.3	61.7	100.0
전체	25.2	74.8	100.0

그림 3. 최종 학력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전공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다음으로 7개 전공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육계열 전공자의 경우 54.3%가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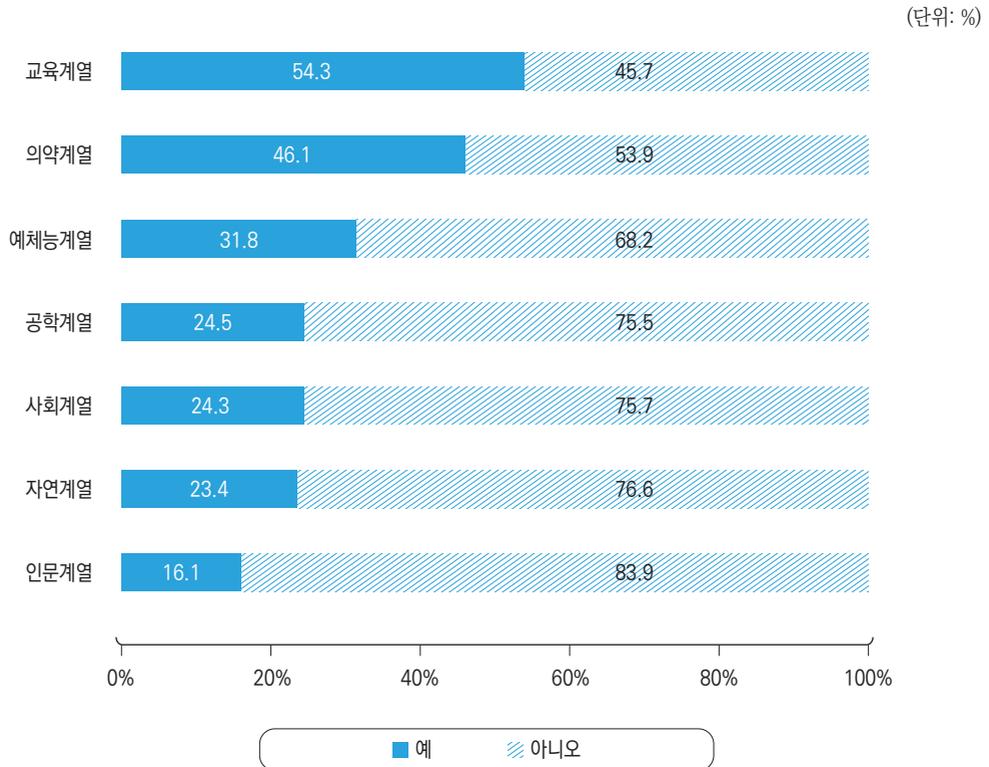
-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전공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교육계열 54.3%, 의약계열 46.1%, 예체능계열 31.8%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희망 직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공학계열의 경우 24.5%, 사회계열은 24.3%, 자연계열은 23.4%, 인문계열은 16.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 전공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교육계열	54.3	45.7	100.0
의약계열	46.1	53.9	100.0
예체능계열	31.8	68.2	100.0
공학계열	24.5	75.5	100.0
사회계열	24.3	75.7	100.0
자연계열	23.4	76.6	100.0
인문계열	16.1	83.9	100.0
전체	26.9	73.1	100.0

그림 4. 전공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대학 소재지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대학 소재지(수도권, 지방)에 따른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대학의 경우 25.1%,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28.3%가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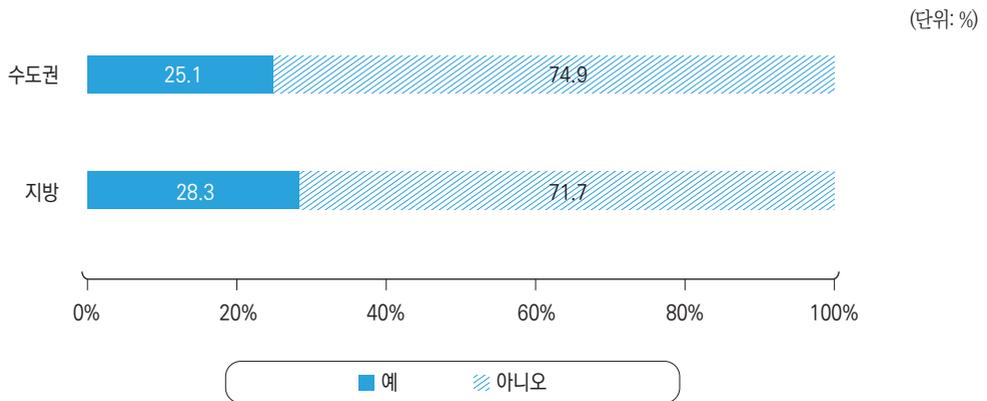
표 5. 대학 소재지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수도권	25.1	74.9	100.0
지방	28.3	71.7	100.0
전체	27.0	73.0	100.0

주: 외국 소재 대학 졸업자 2명 결측 처리함.

그림 5. 대학 소재지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산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산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분석한 결과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평균보다 높은 산업 분류는 교육 서비스업(4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3.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1.4%), 정보통신업(30.5%), 제조업(27.2%) 등임.
- 전체 평균보다 낮은 산업 분류는 농업, 임업 및 어업(20.7%), 숙박 및 음식점업(20.5%), 건설업(17.9%), 금융 및 보험업(17.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6.0%), 운수 및 창고업(14.2%), 도매 및 소매업(13.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9.4%), 부동산업(1.5%) 등임.

표 6. 산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교육 서비스업	48.4	51.6	100.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2.3	57.7	10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3.4	66.6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1.4	68.6	1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31.2	68.8	100.0
정보통신업	30.5	69.5	100.0
제조업	27.2	72.8	1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6.2	73.8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20.7	79.3	100.0
숙박 및 음식점업	20.5	79.5	100.0
건설업	17.9	82.1	100.0
금융 및 보험업	17.6	82.4	10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0	84.0	100.0
운수 및 창고업	14.2	85.8	100.0
도매 및 소매업	13.2	86.8	100.0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9.4	90.6	100.0
부동산업	1.5	98.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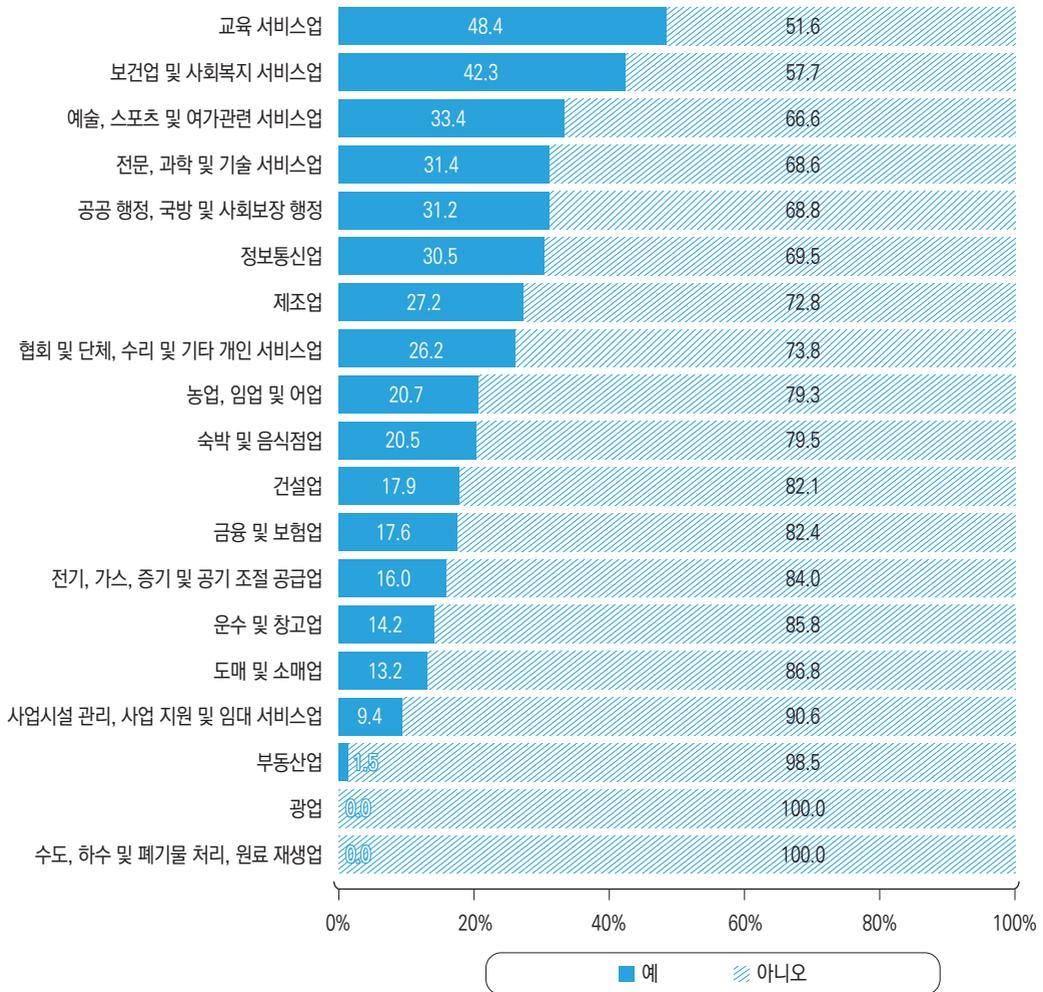
〈표 계속〉

광업	0.0	100.0	1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0	100.0	100.0
전체	26.2	73.8	100.0

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은 조사 대상자가 없어 분류에서 제외함.

그림 6. 산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 직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 다음은 직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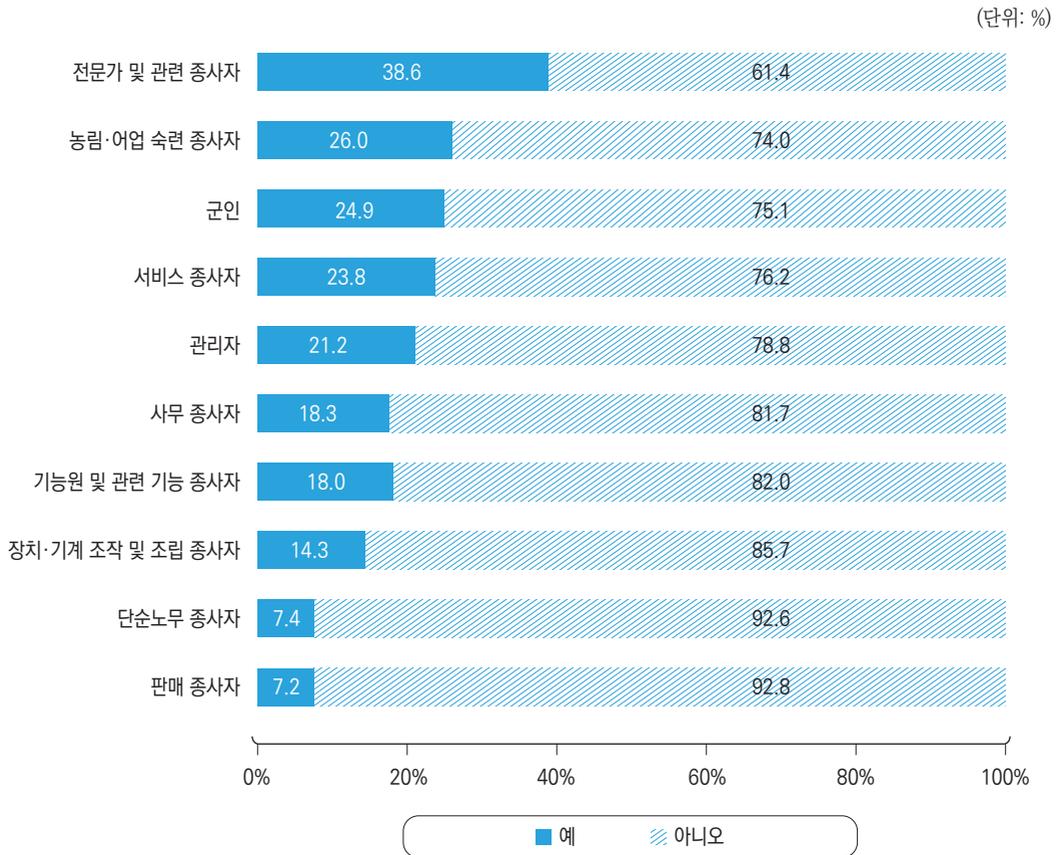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 군인 24.9%, 서비스 종사자 23.8%, 관리자 21.2%, 사무 종사자 18.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순으로 나타남.
- 단순 노무 종사자와 판매 종사자는 각각 7.4%, 7.2%로 10% 미만의 낮은 경향을 보임.

표 7. 직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요	총계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8.6	61.4	10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	74.0	100.0
군인	24.9	75.1	100.0
서비스 종사자	23.8	76.2	100.0
관리자	21.2	78.8	100.0
사무 종사자	18.3	81.7	10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0	82.0	10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3	85.7	100.0
단순노무 종사자	7.4	92.6	100.0
판매 종사자	7.2	92.8	100.0
전체	26.2	73.8	100.0

그림 7. 직업 분류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



2. 직장 만족도

□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 희망 직업 종사 여부에 따라 6개 영역별 직장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함.

- 근무 환경(시설·안전·위생상태)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5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예 61.6%, 아니요 50.8%로 10.8%p 차이를 보임.

표 8.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근무 환경(시설·안전·위생상태)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6.6	31.8	61.6	100.0	3.70
아니요	13.2	36.0	50.8	100.0	3.46
전체	11.5	34.9	53.6	100.0	3.52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임금(소득)에 대한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32.2%로 다른 만족도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40.7%, 29.2%로 11.5%p 차이를 보임.

표 9.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임금(소득)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22.4	36.9	40.7	100.0	3.22
아니요	29.8	41.0	29.2	100.0	2.98
전체	27.9	39.9	32.2	100.0	3.04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개인의 발전 가능성 대한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42.1%였으며,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51.7%, 38.7%로 13.0%p 차이를 보임.

표 10.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12.2	36.1	51.7	100.0	3.52
아니요	22.7	38.5	38.7	100.0	3.18
전체	20.0	37.9	42.1	100.0	3.27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복리후생 제도(사회보험 및 복지) 대한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38.2%였으며,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44.4%, 36.0%로 8.4%p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만족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적었음.

표 11.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복리후생 제도(사회보험 및 복지)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19.1	36.4	44.4	100.0	3.34
아니요	26.2	37.8	36.0	100.0	3.11
전체	24.3	37.5	38.2	100.0	3.17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고용 안정성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53.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57.7%, 51.3%로 6.4%p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만족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적었음.

표 12.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고용의 안정성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9.4	32.9	57.7	100.0	3.70
아니요	15.9	32.8	51.3	100.0	3.48
전체	14.2	32.8	53.0	100.0	3.54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 인사체계(승진제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 대상의 "만족" 응답 비율은 27.3%로 가장 낮았으며, 희망 직종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33.5%, 25.1%로 8.4%p 차이를 보였으며, 다른 만족도와 비교하여 차이가 적었음.

표 13.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인사체계(승진제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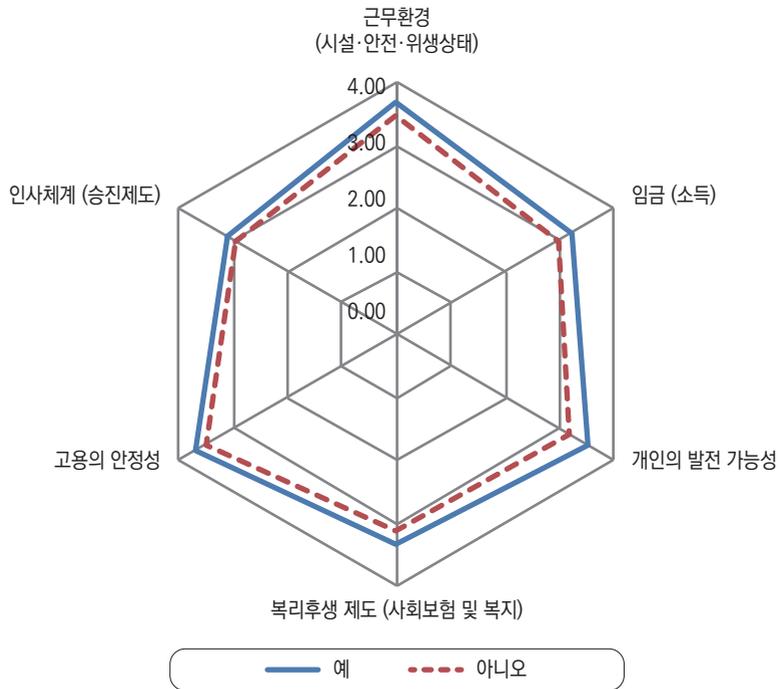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불만족	보통	만족	총계	평균
예	21.6	45.0	33.5	100.0	3.13
아니요	27.1	47.8	25.1	100.0	2.95
전체	25.7	47.0	27.3	100.0	3.00

주: 1) 불만족: "①=전혀 그렇지 않다" + "② = 그렇지 않다"
 2) 보통: "③=보통이다"
 3) 만족: "④=그렇다" + "⑤=매우 그렇다"

그림 8.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단위: 점)



□ 성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 성별에 따라 직장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특히 근무 환경(시설·안전·위생상태) 만족도에서 0.22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인사체계(승진제도)에 대해서는 0.04점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낮은 만족도를 보임.

표 14. 성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단위: 점)

구분	남			여		
	예	아니요	전체	예	아니요	전체
근무 환경 (시설·안전·위생상태)	3.20	2.94	2.99	3.42	3.23	3.29
임금(소득)	2.63	2.49	2.52	2.80	2.71	2.73
개인의 발전 가능성	2.75	2.65	2.67	3.05	2.82	2.89
복리후생 제도(사회보험 및 복지)	2.77	2.54	2.58	2.90	2.73	2.78
고용의 안정성	2.92	2.66	2.71	3.01	2.99	3.00
인사체계(승진제도)	2.58	2.45	2.47	2.62	2.56	2.58

그림 9.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남성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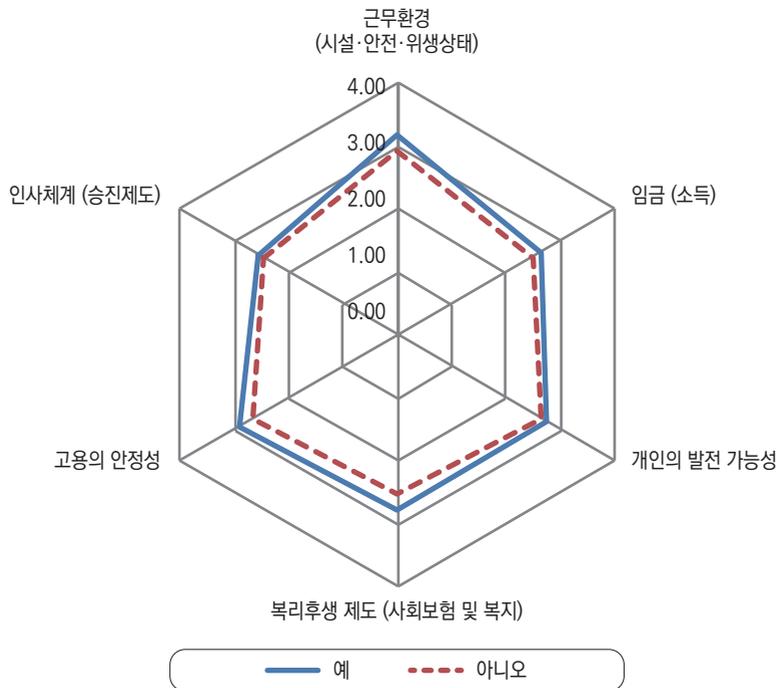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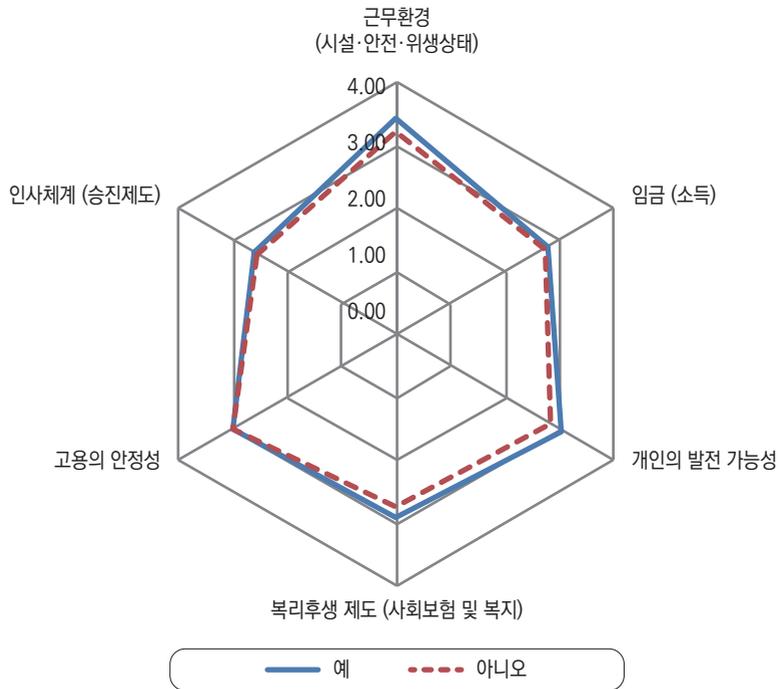


그림 10.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여성

(단위: 점)



□ 학력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영역별 직장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라도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인사체계(승진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표 15. 학력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고졸			고졸 이상		
	예	아니요	전체	예	아니요	전체
근무 환경 (시설·안전·위생상태)	3.28	3.03	3.05	3.31	3.05	3.12
임금(소득)	2.64	2.63	2.64	2.72	2.56	2.60
개인의 발전 가능성	3.10	2.61	2.66	2.88	2.72	2.76
복리후생 제도(사회보험 및 복지)	2.76	2.74	2.74	2.84	2.59	2.65
고용의 안정성	3.07	2.85	2.88	2.96	2.77	2.82
인사체계(승진제도)	2.76	2.51	2.54	2.59	2.49	2.51

그림 11.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고졸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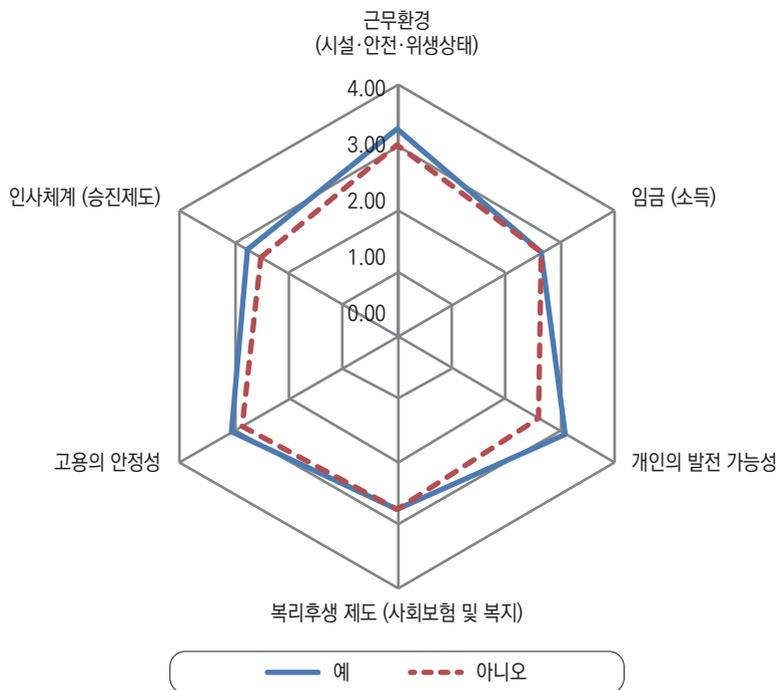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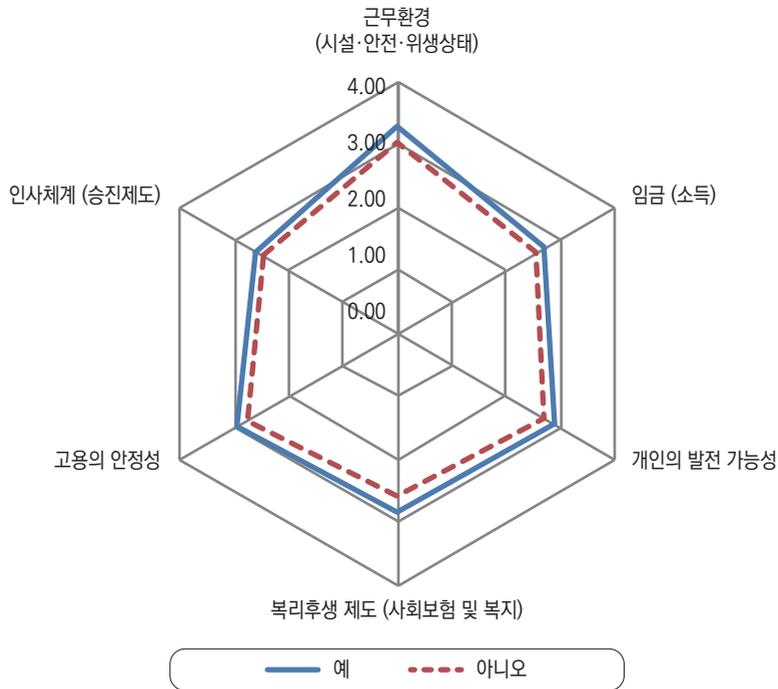


그림 12. 희망 직업 종사 여부별 직장 만족도: 고졸 이상

(단위: 점)



IV. 요약 및 결론

○ 현재 고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4명 중 1명이 고등학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현재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 비율은 28.2%로 남성(23.7%)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최종 학력별로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력이 대학원 박사인 경우

38.3%, 대학원 석사인 경우 36.2%가 “고교 시절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4년제 대학인 경우 26.3%, 전문대학인 경우 24.3%, 고등학교인 경우 12.1% 순으로 낮아져 고학력일수록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함.

-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이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 전공계열별 희망 직업 종사 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육계열 54.3%, 의약계열 46.1%, 예체능계열 31.8%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인문계열은 16.1%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업 분류별 분석 결과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희망 직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교육 서비스업(48.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33.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31.4%), 정보통신업(30.5%), 제조업(27.2%) 등임.
- 직업 분류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6.0%, 군인 24.9%, 서비스 종사자 23.8%, 관리자 21.2%, 사무 종사자 18.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리 종사자 14.3%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 종사 여부에 따른 직장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희망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직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희망 직업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직장 만족도는 남성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최종 학력에 따라 영역별 직장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최종 학력이 고졸인 경우라도 희망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에 비해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나 인사체계(승진제도)에 있어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희망 직업의 결정에는 개인의 배경과 적성, 소질뿐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서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하고 구조적인 사회경제적 맥락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향후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12차 조사 자료와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희망 직업의 결정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와 노동시장의 성과와 관련한 심층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임. 

참고문헌

손진희(2014).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희망 직업 결정과 첫 직업」, 진로교육연구, 27(3), 117-134.

유홍준·김기현·신인철·오병돈(2013). 「청소년의 직업포부와 희망 직업: 대학전공 선택과의 관련성 분석」, 직업교육연구, 32(6), 91-110.

통계청·여성가족부(2019). 「2019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통계청·여성가족부(2020). 「2020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황성수·윤혜준·민숙원·백원영·박라인·윤종혁(2019).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 추적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2017). 「OECD 교육지표 2017」(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7)[한국어판], OECD·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